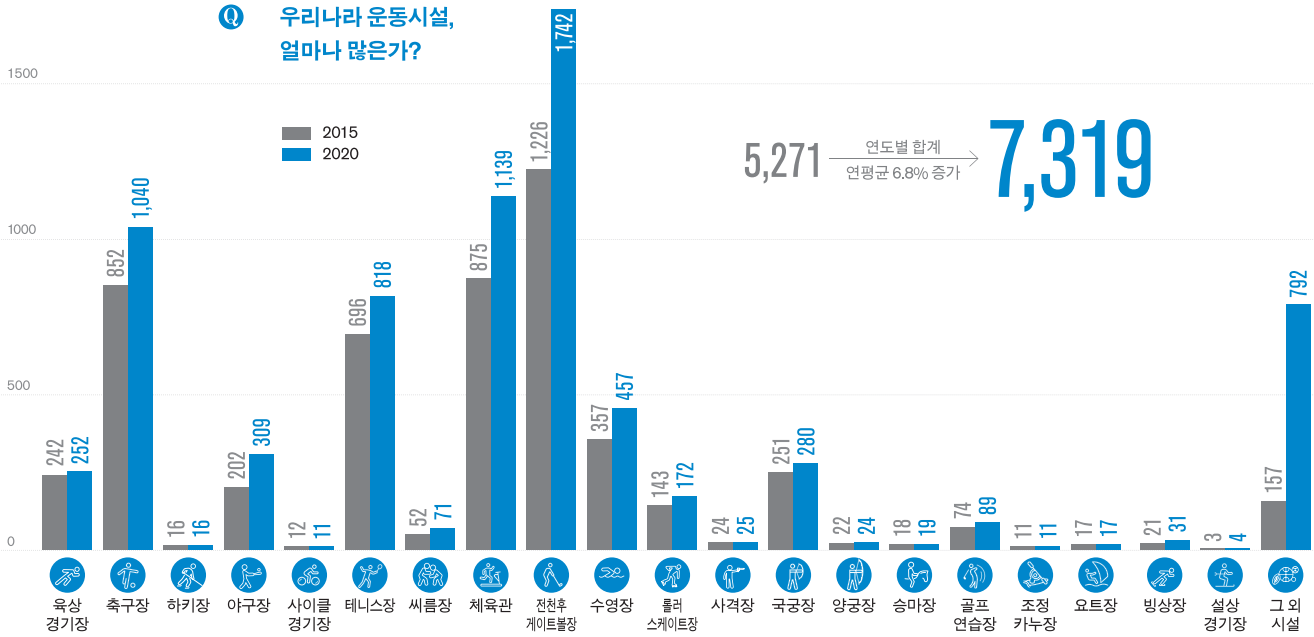


내가 사는 지역에는 공공운동시설이 얼마나 많을까?

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매년 공공건축물 통계자료집 <숫자로 보는 공공건축>을 발간한다. 이 통계자료집은 공공건축물 일반현황, 계약현황, 인구조로 보는 공공건축, 테마통계(특정 용도를 대상으로 한 현황, 서비스 인구 대비 현황 등)로 구성되어 있으며, <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20>에서는 테마통계 대상으로 운동시설*에 대해 살펴보았다. 이번 통계자료실에서는 운동시설의 현황과 지자체별 분포, 인구 대비 분포 현황을 간추려 소개한다.

Q 우리나라 운동시설, 얼마나 많은가?



A 지난 5년간 운동시설은 꾸준히(연평균 6.8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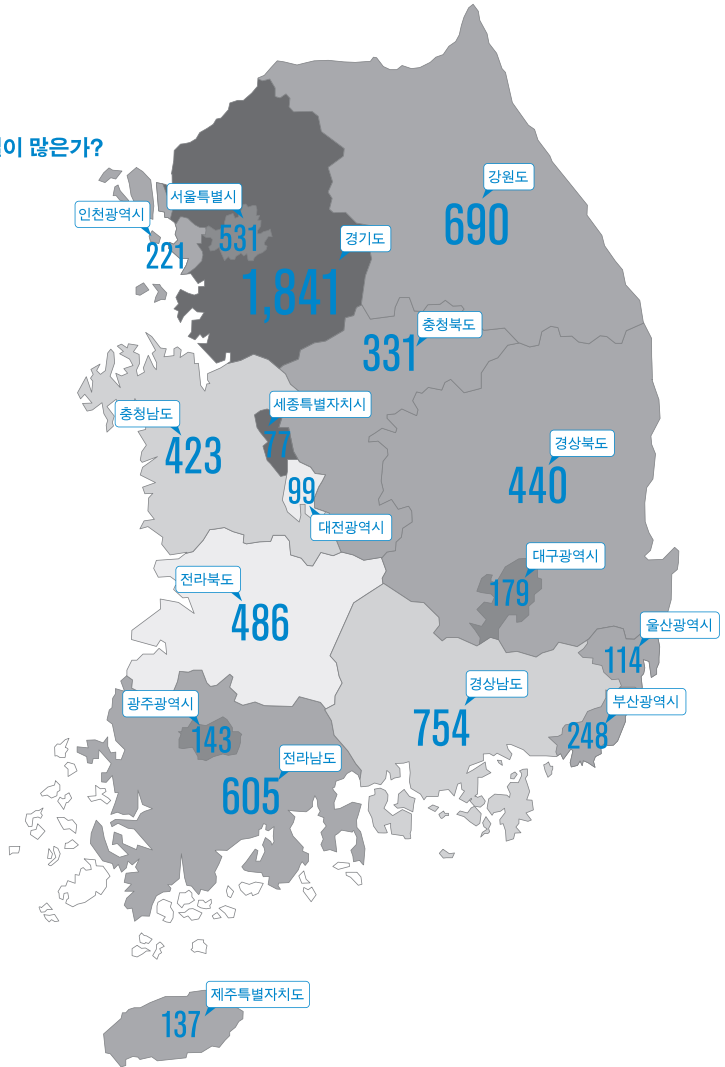
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정보를 활용하여 지난 5년간 운동(체육)시설의 개소 수를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(연평균 6.8%)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. 유형별로는 그 외 시설(구분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)이 38.2% 증가하였고, 야구장(8.9%), 빙상장(8.1%) 순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유일하게 사이클경기장이 연평균 1.7% 감소하였다.

* 통계자료실에서 살펴볼 운동시설이란 「체육시설법」 제2장 공공체육시설 중 간이운동장은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.

Q 어느 지역에 운동시설이 많은가?

5년간(2015~2020) 운동시설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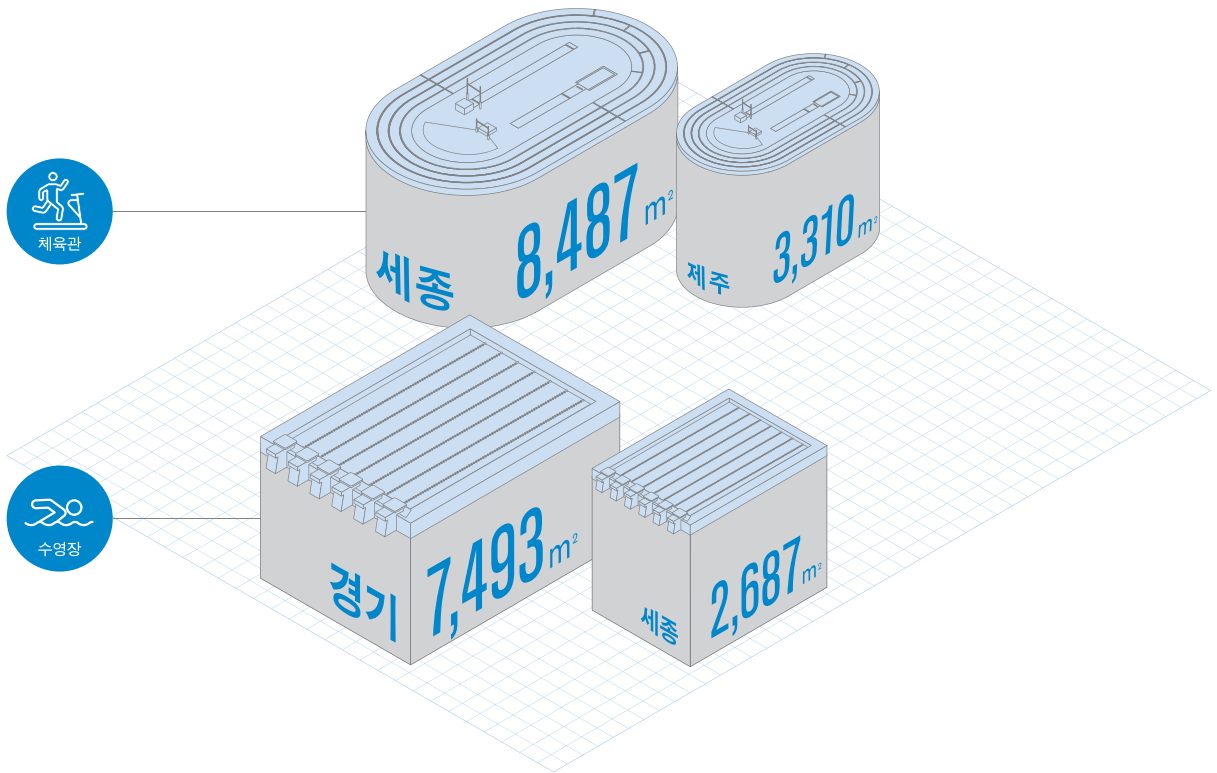
- 3.09% 미만
- 3.09% 이상 - 4.60% 미만
- 4.60% 이상 - 7.55% 미만
- 7.55% 이상 - 11.35% 미만
- 11.35% 이상



A 전국 운동시설의 35.4%가 수도권에 위치

2020년 기준 운동시설 3개소 중 1개소가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에 위치하고 있다.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·도는 세종특별자치시(19.2%), 그 다음이 경기도(11.9%), 대구광역시(9.8%) 순이었으며, 증가율 상위 5개 시·도 중 4개가 특·광역시(세종, 대구, 광주, 울산)인 것으로 나타났다. 운동시설 유형 중에서 설상경기장은 강원에만 있고, 조정카누장은 특·광역시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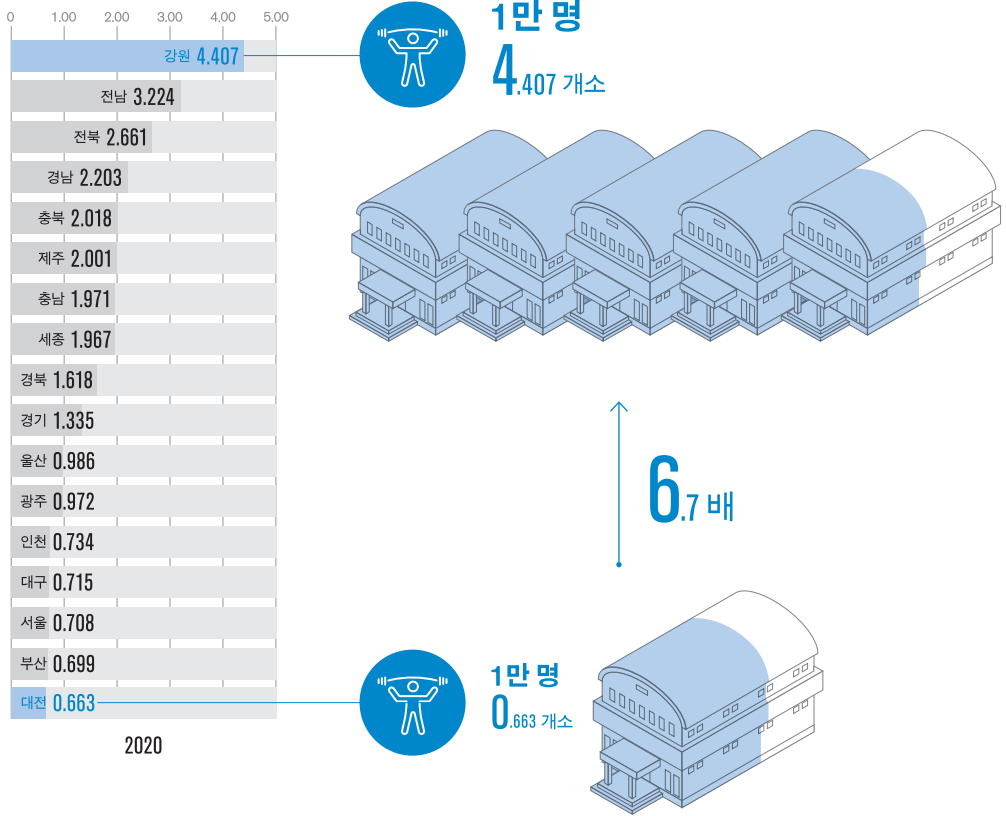
❓ 어느 지역 체육관과 수영장의 면적이 클까?



Ⓐ 체육관은 세종이 가장 크고 제주가 가장 작으며, 수영장은 경기가 가장 크고 세종이 가장 작음

전국 운동시설의 유형별 평균 연면적은 빙상장(1만 3,569m²), 육상경기장(1만 602m²), 사 이클경기장(9,811m²), 야구장(8,398m²)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. 지역별로 살펴보면 체육관의 평균 연면적은 세종(8,487m²)이 가장 크고 제주(3,310m²)가 가장 작으며, 수영장은 경기(7,493m²)가 가장 크고 세종(2,687m²)이 가장 작았다. 운동시설 유형 21개 가운데 6개 유형(씨름장, 승마장, 조정카누장, 빙상장, 설상경기장, 그 외 시설)은 도 지역이 크며, 나머지는 특·광역시가 컸다.

Q 인구 대비 운동시설이 가장 많거나 적은 지역은 어디일까?



A 2020년 인구 대비 운동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

인구 1만 명당 운동시설은 1.02개소(2015)에서 1.41개소(2020)로 증가하였다. 2020년 인구 대비 운동시설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(4.407개소/1만 명)이며, 가장 적은 곳은 대전광역시(0.663개소/1만 명)로 나타났다. 인구 1만 명당 운동시설 수는 도 지역이 특·광역시에 비해 2.5배, 강원도는 대전광역시에 비해 6.7배 많았다.